

7

진짜 시와 가짜 시



◆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두 편의 시 중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 봅시다.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은
하늘인가 봐.

높고 높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머니 마음은
바다인가 봐.

깊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까

어머니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나 봐.

넓고 넓은 품에 안기면
이불처럼 포근하니까.

어머니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나 봐.

언제나 환한 웃음을
띠고 계시니까.

엄마 발

엄마가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이 안 벗겨졌다.

우리가
억지로 벗겨 보니

엄마 발이 몹시
뽕뽕 부었다.

엄마 발은
뽕뽕 부었지만

발이 예쁘고
빠죽 구두 신은 발보다

평퍼짐하지만
엄마 발이 더 좋다.



진짜 시와 가짜 시



진짜 시와 가짜 시는 어떻게 구분할까? 겉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아무 느낌이 남지 않는 시는 가짜 시다. 특별히 잘 쓴 것 같지 않아도 읽고 나면 느낌이 남는 시가 진짜 시다. 시뿐 아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조선 시대에 명화로 알려진 유명한 그림이 있었다. 소나무 아래에 선비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위를 올려다보는 그림이었다. 소나무도 잘 그렸지만 뒷짐진 선비의 표정이 너무너무 생생했다.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유명한 화가 안견이 이 그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구경하러 갔다. 그림 주인은 훌륭한 화가가 자기 그림을 보겠다고 직접 찾아온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림을 펼쳤다. 이제 과연 어떤 칭찬이 쏟아질까? 주인은 설레는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한참 만에 안견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잘 그리긴 했는데, 조금 아깝구려.”

주인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나고 물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높은 곳을 올려다보려면 목 뒤에 반드시 주름이 잡히게 마련이오. 그런데 고개를 젓혀 바라보는 선비의 뒷덜미에 주름이 하나도 없질 않소?”

안견은 다시 보기도 싫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 버렸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그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린 그림이 되고 말았다.

소나무를 그리는 솜씨도 뛰어났고, 사람의 표정도 생생했다. 다만 화가는 소나무를 올려다보는 선비의 목 뒤의 작은 주름을 놓치고 말았다. 그 결과 소나무의 푸르른 기상을 우러르는 선비의 마음까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화가는 그림 속에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그림도 죽은 그림이 되고 만다. 그런 그림은 가짜다.

시인도 마찬가지다. 시인은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노래한다. 그런데 그 속에 시인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표현이 아름다워도 읽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살아 있는 시는 어떤 시일까? 한시를 한 수 살펴보자.

고려 때 시인 고조기가 지은 「산장의 밤비」라는 작품이다.

어젯밤 송당에 비가 왔는지
베갯머리 서편에서는 시냇물 소리.
새벽녘 뜨락의 나무를 보니
자던 새는 등지를 아직 떠나지 않았네.



내용만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다. 간밤 잠결에 시냇물 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간밤에 비라도 온 걸까? 새벽에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마당 나무 위 새 둥지에 새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 시의 내용은 별것이 아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인의 마음이다. 시인은 어째서 나무 위에서 자던 새가 여태까지 둥지를 떠나지 않은 것을 말했을까? 산속 집의 아침은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노래하는 산새들의 합창으로 시작된다. 보통 때 같으면 새소리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밖이 거짓말처럼 조용하다.

시인은 처음에 “어? 오늘은 웬일로 요놈들이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궁금해서 방문을 활짝 연다. 처음에는 새들이 울지 않기에 아직도 날이 새지 않은 줄 알았다. 문을 열고 보니, 새들은 포근한 제 보금자리를 나올 생각이 없다는 듯이 둥지 속에다 제 몸을 파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시인은 모든 사실을 다 알아차렸다. 그래 어젯밤 꿈결에 시냇물 소

리가 들려왔었지. 간밤에 산속에 비가 많이 왔었구나. 그 비에 시냇물이 불어났던 게로군. 숲이 온통 젖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 녀석들이 둥지에 틀어박혀 있는 게로구나. 시인은 배를 깔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둥지 속의 새를 쳐다본다. 둥지 속의 새도 말뚱말뚱 주인을 바라본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말없이 놀자고 한다.

가만히 이 시 속의 정경을 그림으로 옮겨 보면 참 재미가 있다.



정선의 「인곡유거도」

1 「진짜 시와 가짜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화가 안견이 소나무와 선비 그림을 보고 실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림과 시를 쓰려면 작품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 했나요?

- 3 글쓴이가 「산장의 밤비」를 살아 있는 시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산장의 밤비」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 봅시다.



3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말의 뜻을 파악해 써 봅시다.

으쓱했던 주인은 안견의 말에 코가 납작해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 4 「진짜 시와 가짜 시」의 주장을 파악하여 「어머니 마음」과 「엄마 발」을 비교해 써 봅시다.

- 5 옛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꿈꿨던 얼어붙은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매화를 아주 사랑했다고 합니다. 매화와 관련된 한시 세 편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봅시다.

도산 달밤에 핀 매화

홀로 산창[●]에 기대서니 밤기운이 차가운데
매화 가지 끝에는 둥그렇게 달이 떴다.
살랑살랑 미풍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온 집안에 맑은 향기가 절로 가득하다.

● 산창: 산에 있는 집이나 있는 창문





매화 가지 끝의 밝은 달

매화는 본래부터 환히 밝은데
달빛이 비치니 물결 같구나.
서리 눈에 흰 살결이 더욱 어여빠
맑고 찬 기운이 뼈에 스민다.
매화꽃 마주 보며 마음 씻으니
오늘 밤엔 한 점의 찌꺼기 없네.

매화 매
매화
얼음 뼈
옥 같은 뺨.
선달 다 가고
봄 오려 하는데
북쪽 아직 출진만
남쪽 가지 꽃 피웠네.
안개 아침에 빛 가리고
달 저녁엔 그림자 배회하니
찬 꽃술 비스듬히 대술 넘나고
향기는 날아서 금 술잔에 드누나.
흰 떨기 추위 떠는 모습 안쓰럽더니
바람에 날려 이끼에 지니 애석하도다.
굳은 절개를 맑은 선비에 견줄 만함을 아니
그 우뚝함 말한다면 어찌 보통 사람에 비하리.
홀로 있음 사랑하여 시인이 보려 감은 용납하지만
시끄러움 싫어해 나비가 찾아옴은 허락지 않는도다.
문노라, 조정에 올라 높은 정승의 지위에 뽑히는 것이
어찌 옛날 임포 놀던 서호의 위, 고산의 구석만 하겠는가.



배움 다지기

-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비교하여 생각을 썼나요?

